



2004 PC시장 성장 LCD패널이 좌우

2004년 세계 PC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복병은 LCD패널의 공급 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프 데이비스는 최근 올들어 계속된 LCD패널의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이로 인해 CRT모니터에서 LCD모니터로 제품규격을 전환한 PC제조업체가 가장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델, 게이트웨이 등 대형 PC제조업체들은 LCD패널가격의 대폭인하에 힘입어 큰 부담 없이 CRT모니터를 낯선 LCD모니터로 바꿀 수 있었다. 하반기 들어 LCD패널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자 주요 PC업체들은 다른 부품가격을 낮춰 원가상승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인치 노트북용 패널가격은 4분기까지 50% 가량 상승할 정도로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노트북PC의 수요증가에 덧붙여 CRT모니터도 LCD모니터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 LCD패널 공급부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대만 LCD업체들의 5세대 라인이 아직 수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LCD패널 공급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는 결국 LCD패널을 내장한 각종 PC기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PC업체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프 데이비스는 전했다.

DVR시장 2007년까지 급증 전망

전세계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시장이 판매량 기준으로 올해 40%

증가를 시작으로 오는 2007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CNN머니가 시장조사기관 양키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80만대 규모였던 DVR 시장은 올해 320만대로 예상되며 오는 2007년에는 2,470만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DVR는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 테이프 대신 하드디스크 등 매체에 저장해 수정, 검색, 편집을 편리하게 만든 기록장치다.

양키그룹은 관련업체들이 DVR 기능을 TV나 DVD 재생기, 가정용 게임기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 가정이 DVR를 여러대 보유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특히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2'가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이 조사기관은 덧붙였다

미국 IT경기 올해 6.4% 성장 전망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이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게 됐다고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통계국(ECA)은 '디지털경제 2003' 보고서를 통해 "IT산업이 2001년 바닥을 친 후 다시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수년간 이런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IT산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연평균 2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했으나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0.9%와 1.6%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 보고서는 미국 IT업체가 올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가치는 지난해 1조1,700억달러에서 1조2,4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수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2.9%를 두배 이상 웃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IT산업 분야 종사자는 지난해 2000년 이래 11.2% 감소한 480만명에 머물러 민간 산업분야 전체의 고용감소를 2% 미만에 비해 사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IT관련 직종의 평균연봉 역시 지난해 6만7,440달러로 2001년 대비 1.3% 떨어졌다.

반도체장비 내년 경기 '쾌청'

2004년 세계 반도체장비시장이 36%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누릴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가 최근 내놓은 2004년 1분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반도체장비시장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계 반도체업체의 자본지출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3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험장비를 포함한 반도체장비 시장은 올해보다 36% 성장한 29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가트너 반도체부문 클라우드 디터 린넨 부사장은 내년도 반도체장비 시장에 대해 "한마디로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낙관적 시장전망의 근거로 △구형 PC 및 반도체업체의 장비 교체주기가 돌아온 점 △소비자용 무선랜 보급확대 △낮은 반도체 재고량 △반도체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한 점 등을 들었다.

리넨 부사장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2004년은 세계 반도체 장비업계에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시설확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샤프 TV용 대형 LCD패널 생산 확대

샤프가 TV용 대형 TFT LCD 패널 생산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프는 오는 봄에 약 900억엔을 투입, 미에현 가메야마에 위치한 대형 LCD공장의 생산 능력을 당초 계획의 3배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샤프는 이번 설비 증설로 가메야마 공장의 30인치 LCD TV 생산능력이 월간 36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샤프는 아울러 가메야마 공장에 설치된 한 개의 생산라인 외에 두 개의 생산라인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샤프는 이로써 가메야마 공장에 모두 2,000억엔 가량을 쏟아붓는 셈이다.

신설 생산라인 2곳에서는 25~40인치 LCD패널이 주로 생산되며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는 샤프가 작년 세계 LCD패널 시장에서 13.4%를 점유, 한국의 LG 필립스LCD와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 D램시장 2005년까지 연 40% 팽창

세계 D램시장은 향후 2년간 IT업계의 D램수요증가와 수급조절에 힘입어 성장세를 구가한 뒤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C넷이 시장조사기관 IDC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나타난 D램시장의 호황세가 PC교체주기의 도래와 차세대 CPU출시, 가전업계 D램 수요증가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세계 D램시장은 연 4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06~2007년은 12인치 랩의 과잉투자에 따른 조정기에 접어들어 D램제조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IDC는 2005년 이후 일시적인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D램시장은 올해 165억달러에서 오는 2007년 247억달러로 늘어나 큰 틀에서 성장세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나노·그리드 육성 '뭉치돈'

영국 정부가 나노, 그리드 등에 뭉치돈을 투자하며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영국 정부는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계획인 '국가기술전략(National Technology Strategy)' 보고서를 마련,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나노, 그리드 같은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영국 정부가 1억5000만 파운드(2억6,3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특히 나노기술 분야에만 이의 절반이 넘는 9,000만 파운드(1억5,800만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페트리셔 휴잇 영국 무역·산업 장관은 "혁신이야말로 영국경제에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핵심 요소"라며 "현재의 제조분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산업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경제에서의 경쟁 : 혁신 도전(Competing in the

global economy: the innovation challenge)'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는 유망업 발견을 위한 그리드 슈퍼컴퓨터 구축 계획인 'e다이아몬드'를 거론하며 그리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 업계와 정부 대표로 구성된 기술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 세계 디카시장 10조원 크게 웃돌아

올해 세계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지난해보다 50% 성장, 지난 95년 이후 9년 만에 10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CIPA)가 최근 조사한 카메라 출하 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까지의 디지털카메라 세계 출하액이 1조1052억엔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CIPA에 따르면 지난해 7,977억엔이었던 디지털카메라 세계 출하액이 올해에만 50% 증가해 1조2,000억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첫 조사를 시작한 99년에 약 2280억엔이었던 것을 감안할때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출하액 급증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요 확대와 소형 카메라의 고화소화를 들 수 있다. 또 디지털 일안렌즈 등 고급 기종이 잇따라 출시된 것도 출하액 증가를 부채질했다고 CIPA는 분석했다.

이 통계는 특히 필름 카메라의 세계 출하액이 전성기였던 91년에도 약 4,000억엔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이 같은 성장세가 놀라운 것이라고 적었다.

디지털카메라는 출하량에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 1~11월 동안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한 3890만대를 기록했다.

출하량 시장 순위에서는 전년보다 200% 이상 급성장한 유럽시장이 1313만대로 최대 시장에 올랐고 미국 시장(1265만대, 67% 증가), 일본시장(744만대, 31%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름 카메라 시장은 올 1~11월까지의 세계 시장 출하량이 1537만대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CIPA는 연초 올 한해 약 2,017만대의 출하를 예상했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2,000만대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중국 독자 개발 CPU 양산

중국이 최근 베이징에서 자체 개발한 CPU 시스템 칩의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베이징대학 마이크로프로세서 연구개발센터가 중국 최대 규모의 CPU시스템 칩을 개발·양산해 출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북대중지-863'으로 명명된 이 CPU칩은 800만개의 트랜지스터를 내장,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발한 칩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베이징대는 시스템 구조, 지령 시스템, 집적회로 IP코어, 전체 설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등 모든 것을 자체 개발, 지적재산권도 보유하게 된다.

과학기술부측은 "이 칩을 기반으로 한 리눅스 조작시스템을 실행하는 인터넷 컴퓨터가 기술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높은 신뢰성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판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2005년까지 120억달러"

내년 반도체장비시장의 성장은 평판디스플레이가 이끌 전망이라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미국계 투자은행인 베린캐피탈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현재 150억달러에서 2005년까지 800억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올해 1,75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2,250억달러로 늘어나 평판디스플레이에 비하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제품별 생산코스트 가운데 설비 구매 비중을 보면 평판디스플레이 부문은 15~20%에 불과해 25%를 차지하는 반도체부문에 비해 향후 설비투자여력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5년까지 평판디스플레이 업계의 설비투자는 100억~120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반도체장비 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라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는 분석했다.

필립스·TI GPRS 핸드폰 칩셋 가격 인상

필립스와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자사의 2.5세대 GPRS 휴대폰 칩셋 가격을 10~15%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만 디지털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회사는 세계적인

휴대폰 수요 증가로 관련 칩셋 부품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GPRS 휴대폰 칩셋 가격인상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GPRS 휴대폰 칩셋은 개당 2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칩셋 공급물량에 비해 수요가 20% 이상 많아 부품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디지털타임스는 이 밖에 DVD기기와 무선랜 제품의 판매증가도 핸드폰 칩셋의 공급 부족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NEC 통역 로봇 개발

일본의 통신기기 선두업체 NEC는 영어와 일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NEC는 자사가 앞서 개발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거나 대화능력을 갖춘 인간형로봇 '파페로'에 수천명의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과 발음에 차이가 있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내는 제어시스템을 추가해 통역 로봇을 만들었다.

단어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번역어를 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나 일본어 명령을 알아듣는 로봇을 비롯, 정해진 일본어로 대답하는 로봇이 개발된 적은 있으나 통역 능력을 갖춘 로봇이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로봇의 구조는 마이크가 붙은 소형 무선 단말기를 향해 일본어로 말하면 음성 데이터가 로봇에 전달돼 주어와 동사 등의 구문을 분석, 수록돼 있는 약 2만5,000개의 영어 단어를 구사해 영어로 옮겨주며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는 능력도 갖췄다. ●